

## 민관협력으로 국외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한다

- 우리금융그룹과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자녀 지원
- 올해 맞춤형 학습용 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장학금 및 문화·교류 활동 등 지원 확대

□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와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(이사장 손태승)은 이혼·사별 등으로 베트남 귀환 결혼이민자의 동반 한국국적 자녀(이하 '귀환 자녀')를 대상으로 학습용 가구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.

\*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공동 출연하여 2012년에 설립한 금융권 최초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익재단으로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및 교육·복지지원 등 수행

○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아동·청소년의 쾌적한 학습 환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부방 환경 개선사업(이하 '지원사업')인 「우리 드림(Dream) 공부방」을 진행하고 있다.

※ 공부방 환경개선(책상, 의자, 책장 등 학습용 가구 지원) 현황('14~'22) : 8회 374명

○ 올해에는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뿐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귀환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베트남 하이퐁시, 켄터시 지역의 귀환 자녀에게 책상·책장, 서랍장 등 학습용 가구를 지원해 학습 환경의 개선을 돕는다.

○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거상황,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자 1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.

□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원사업 이외에도 귀환 자녀 대상 장학금 등 성장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.

○ 2024년에는 귀환 자녀 대상 장학금을 신설해 학교생활과 학업증진을 돕고, 진로개발과 재능 발굴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그동안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'글로벌 문화 체험'을 확대해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 거주 다문화자녀와 귀환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·문화체험 및 멘토링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베트남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국적 자녀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며,

○ “여성가족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가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앞으로 한-베 관계개선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	책임자	과 장 송지은	(02-2100-6371)
	다문화가족과	담당자	사무관 전병길	(02-2100-6370)